화두일념 천번 만번 의심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識得 杖子(식득주장자)하면 官不容針(관불용침)이요 私通巨馬(사통거마)로다.

이 주장자의 진리를 알 것 같으면 관에는 바늘도 용납하지 않음이요, 사사로이는 거마가 통함이로다.

금일은 무술년(戊戌) 하안거 결제일(結制日)입니다.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四部大衆)은 이번 안거(安居)에 반드시 자기의 본분사(本分事)를 해결하여 생사에 자재(自在)하고 진리(眞理)의 낙(樂)을 수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높은 진리인 심인법(心印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크게 흥하다가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한 줄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간(世間)과 선원(禪院)에서도 화두참선(話頭參禪)이 아닌 다른 수행법에 관심을 보이는 이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은 먼저 화두(話頭)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두참선은 일초즉입여래지(一超卽入如來地)에 이르는 경절문(徑截門)입니다. 조사선(祖師禪)의 가풍(家風)은 안종사(明眼宗師)인 선지식(善知識)이 제자를 지도할 때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아니라, 벽력같은 할(喝)과 온몸이 부서지는 방(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알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부처님과 조사(祖師)를 알고 팔만 사천 법문을 모두 아는 것이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천하를 종횡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번 결제기간 내에 반드시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겠다는 대장부의 용맹심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흉내 내어 따라한다거나, 참선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본다거나 하는 생각으로는 일대사(一大事)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밀리고 밀려도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어 상류로 올라가듯이, 바위를 올리고 또 올리다가 굴러 떨어져도 다시 올려서 산 정상에 성(城)을 쌓듯이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의지를 가지고 조금도 빈틈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이 화두를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할 때에도 챙기고 의심하여, 화두일념이 지속되게끔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챙기고 의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의 심이 시동 걸리게 됩니다.

이때는 몇 시간이 지나가고, 며칠, 몇 달이 지나가는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태고보우 스님이 부처님의 정법정안(正法正眼)을 부촉(付囑)받으니 57조 법손이 되어서 그 법맥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그 후, 조선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면면(綿綿)히 이어지고, 조선 중기의 63조 청허 휴정선사로 이어진 후,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풍전등화(風前燈火)로 그 법맥이 이어져왔습니다.

근세인 한말(韓末)에 75조 경허(鏡虛) 선사에 이르러 선풍(禪風)을 중흥하여 혜월(慧月) 스님에게로 법(法)을 전했습니다. 혜월 스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법을 펴시니, 운봉(雲峰)선사에게 전해지고, 향곡(香谷)선사에게로 등등상속(等等相續)하여 부처님 심인법 79세인 산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역대(歷代)의 모든 불조(佛祖)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한 부처님심인법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진 후, 오직 한국에서만 오늘 날까지 그 법이 우리의 선불장에서 오롯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부처님의 심인법을 다시 세계에 널리 선양(宣揚)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법은 임제 선사의 선풍(禪風)을 이은 임제종입니다. 예전에 향곡 선사께서 산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덕산 선사의 '방(棒)'의 가풍(家風)을 소중히 여기느냐, 임제 선사의 벽력같은 '할(喝)'의 가풍(家風)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산승(山僧)은, "두 가풍을 모두 한 구덩이에 매장하겠습니다"

또 물으시기를, "필경일구(畢竟一句)는 자마생(作 生)고?"(필경에 일구는 어떻게 생각 하는고?)

산승이 답하기를,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하고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라"(산봉우리에 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 있습니다)

'무(無)' 자 화두로 용맹심 내자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조계산은 본래 육조대사께서 머무르셨던 도량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육조 스님은 나무꾼이었다고 하고 남방 사람이었다 하는데, 금선(金仙)의 혜명(慧命)을 아시고 황매산 홍인대사의 법을 계승하셨습니다.

불조의 정맥을 철견(徹見)하여 정안종사(正眼宗師)가 되는 데는 재상이나 나무꾼의 차별이 없습니다. 혜능이 〈금강경〉 읽는 소리에 마음이 열려서 점검받을 스승을 찾던 중, 황매산 홍인대사가 당대의 선지식이라 찾아갔을 때, 5조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혜능이 대답하기를 "저는 신주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하니, 조사께서 "그대 같은 영남 사람에게 불성(佛性)은 없다"라고 잘라 말하자, 혜능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조사가 "신주는 사냥하는 오랑캐 땅인데 어찌 불성이 있겠는가?"라고 다그치자, 혜능은 "여래장(如來藏)의 성품은 개미에게까지 두루 미치거늘 어찌 오랑캐에게만 없다 하겠습니까?"

조사가 말했다. "너에게 이미 불성이 있다면 어찌 나의 뜻을 구하는 게냐?"라고 하면서 기특하게 여겨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육조스님께서는 심인(心印)을 얻어 의발(衣鉢)을 전수 받고 나서 "심지에는 모든 종자를 머금었다가 단비에 모두 싹이 돋는다. 꽃의 마음을 갑자기 깨닫고



나면 보리의 열매는 자연히 맺으리(心地含諸種 普雨悉皆生 頓悟花情已 菩提果自成)"

이런 게송을 읊은 내력이 〈조당집〉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조계산 칠전선원에 방부를 들이는 수좌들은 이 소식을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알아도 30방이요 몰라도 30방이니, 한번 말후구(末後句)를 일러 보시오. (良久)

퇴보 말고 뼈에 사무치게 탁마하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평상시에 밥 먹고 차 마심은 귀함이 아니요 운문의 간시궐이 참으로 이 귀함이로다. 만약 이 본분의 참된 납자일진댄 조사의 공안을 간취할지어다.

시회대중은 구순 동안 결제해서 이 언덕으로부터 곧 저 언덕에 이르기까지 맹세코 퇴보하지 말고 뼈에 사무치도록 탁마하며 죽음으로 기한하여 정진해서 일을 마친 장부는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한 자니라.

만약 그러하지 못한 자 일진댄 생각생각에 자심을 반조해서 성성하고 적적함을 함께 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서 잠 깨고 잠잠이 한결같아서 언하에 활연대오 하는지라 어찌 쾌하지 않겠는가? 때때로 반조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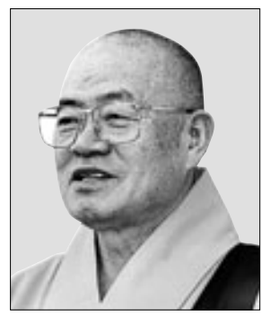
고인이 이르되 털끝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가 수미산을 납입한다 하니 안목을 갖춘 납승은 또 일러라.

도리어 알겠는가? 잠깐 있다가 "할"을 한 번 하고 이르시되 한 가지의 매화향기에 봄소식을 알고 노란 꾀꼬리가 나무에 오름에 한 가지의 꽃이로다. 알겠는가?

게송으로 이르시되

한 물건이 당당하게 항상 드러나서 종과 횡으로 시방을 비추어 다함이 없도다. 만약 긴요히 참구해서 몸과 목숨을 버리면 몰록 생사를 잊고 보리를 이루리라.

시회대중이 만약 생사를 해탈코져 할진댄 모름지기 삼종심을 갖출지니 첫째는 대분심이니



광겁으로 좇아옴으로 누가 성인됨을 방해했으며 둘째는 대용맹심이니 비록 육신을 보존하나 구경에 반드시 죽으며 셋째는 대의심이니 본참공안이 낱낱이 직설이어늘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고? 간절히 참상할지어다.

실참실오는 여래의 지견이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를 속임은 사마의 권속이로다. 만약 또한 실참을 쉬지 아니하면 개개인이 망을 쉬고 정각을 이루리라.

본분사 발휘해야 참 공부인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우인제경불망심(愚人除境不忘心)이요 지자망심부제경(智者亡心不除境)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대상경계를 제거하고 마음을 잊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잊고 대상경계는 제거하지 않는구나.

용아거둔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매우 어렵구나."

"조사의 뜻과 부처님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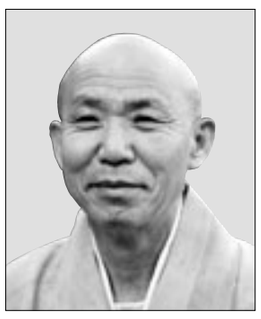
"조사는 부처님보다 나중에 왔다."

"조사는 무사사문(無事沙門)입니까?"

"사문이라면 무사(無事)해서는 안 된다."

"어째서 무사(無事)하면 안 됩니까?"

삼세제불도 무사인(無事人)이며 역대 조사 또한 무사인 입니다. 무사(無事)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며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여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의미와는 달리 '아무 일이 없는 것'을 궁극적인 경지라고 여기는 무사선(無事禪)이 제방(諸方)에 횡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내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지견과 알음알이조차 세우지 않는 것을 도(道)라고 생각하는 병통이 종문(宗門)에 만연하게 됩니다. 유위(有爲)의 사(事)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다시 무위(無爲) 사(事)라는 경계에 속박된



다면 이 또한 큰 허물입니다. 정작 마지막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래서 평상사(平常事) 속에서 본분사(本分事)를 발휘할 때 제대로 된 공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 손으로 번뇌망상의 못과 쐐기를 뽑고 기름 때로 찌든 모자를 벗기며 냄새나는 베적삼을 벗기고 자기 몸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무사를 체득한 납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결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아주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다가 안 쉬면 내생(來生)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적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애써 정진해서 공부를 성취하도록 합시다.

단어사상통무사(但於事上通無事)하고 견색문성불용롱(見色聞聲不用聾)이로다.

단지 일을 하는 중에 일없는 도리에 통해야 하며 색을 보고 소리를 들음에 귀머거리와 봉사처럼 할 필요는 없구나.

힘든 세상, 악업참회·수행매진부터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달마 스님께서 혜가 스님에게 묻기를 "모든 반연(攀緣)을 끊었는가?" 혜가가 답하길 "이미 끊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단멸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혜가가 이르길 "단멸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밝고 밝아 어둡지 않고 분명히 항상 알고 있으니 말로 하려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고요하고 가라앉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마음이 치달리는 것을 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저 '고요해야지, 적정해야지' 하는 것으로는 허무적멸에 치우친 번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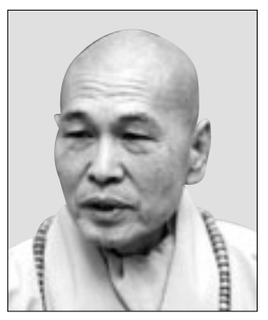
단견(斷見)도 상견(常見)도 모두 떠나 중도(中道)로써 관(觀)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게 됩니다. 근래 세상의 욕망성취들이 눈부시다보니 사람들 역시 천경만론(千經萬論)을 자주 접해서 과거 사람들과는 비할 바 없이 아는 것이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기에 어설픈 지식으로는 세속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특히나 탈권위의 시대, 탈종교의 시대이기에 과거 농경시대의 개념과 인식으로 굳어진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비참해지기가 쉬워집니다. **〈중략〉**

우리 불교는 분명 단견(斷見), 상견(常見)을 모두 떠나 중도로써 실상을 그대로 바라보자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관념들과 선입견들 과거의 경험으로 생겨진 사유들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합니다. 자신의 아상(我相)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나'라는 생각을 초월해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不欺自心(불기자심)!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는 대망어(大妄語)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과 주관적 경험이 정도(正道)라고 믿는 병폐를 여러 번 봤습니다. 불자로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날들입니다. 이럴수록 늘 발원을 굳건히 세우고 과거의 악업들을 참회하며 수행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돌파해나가는 길이 그것뿐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 믿었는데 역시 세상일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처님 당시 카필라국도 지금의 우리처럼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모순들, 즉 민족과 민중계급의 모순



들이 만들어낸 비인간화된 사회를 고민하시다가 결국 출가를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중략〉**

우리 결제대중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 고뇌하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이조 오백년과 정화 때도 그랬고 10.27법난도 극복해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힘든 시절 우리 대중들은 불조의 가르침을 결연히 믿고 엄격한 절제와 자기반성,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각종 모순들을 타파합시다! **〈하략〉**

최상승자(最上乘者), 세간의 복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如斬一握絲(여참일악사)하야 一斬一切斷(일참일절단)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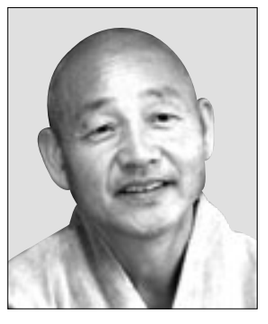
마치 한 줌의 실을 끊음과 같아 하나를 끊으면 모두가 끊어진다네.

여름 석 달을 기한으로 안거를 시작하는 결제일입니다. 산문출입을 삼가며 총림대중이 화합하여 정진하는 이유는 무명업장에 가려진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을 바로 보고 활용하게 하는 최상승인의 안목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명업장을 끊어내는 일에 있어서 헝클어진 실을 풀어내듯 풀려고 한다면 마침내 풀어지지 않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상승의 수행을 하는 공부인은 그 수행을 오롯이 하기 위하여 삭발하고 가사를 입어 세상 사람들과 모습을 달리하며, 안거제도를 활용해 처절한 수행정진을 합니다. 이러한 수행법 가운데 가장 수승하고 쉬운 방법이 바로 화두를 참구하는 일입니다.

오직 한 타래의 실을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먹고 자는 일까지도 잊고서 정진하다 보면 더러운 것도 싫어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집착하지도 않으며, 제도할 중생을 보지도 않고 증득할 만한 열반을 보지도 않으며,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니 이것을 최상승이라 하고 일체지(一切智)라 하며, 무생인(無生忍)이라 하고 대반야라고 합니다. 즉 한 법도 일으키지 않고 일체법을 성취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만나는 사람마다 인천의 사표가 되게 하고, 진참회가 이루어진 청정한 대중이 되게 하며 증애와 시비를 초월한 대자유인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염



색하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물을 들이면 모두가 물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행인이 배출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며, 중생계에 희망을 주는 일이며 청정승가가 유지되고 법희가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략〉**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